

아이들 밥상부터 걷어찬 김문수 후보, 대통령 자격 있습니까?

김문수 후보는 지난 2013년, 전국에서 유일하게 감액추경을 단행하면서 국가의 미래인 아이들의 밥상부터 걷어찼습니다

당시 경기도는 3,875억 규모의 감액추경을 편성했는데, 그 과정에서 학생급식지원예산 53억, 친환경농산물학교지원예산 30억 등 총예산의 2.1%에 불과한 83억원의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삭감했습니다.

더 나아가 2014년 본예산에서는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. 이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“빚을 내면서까지 무상급식을 할 수는 없다”고 밝혔는데 이는 우리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자라나는 세쌍들의 밥그릇을 몽땅 뺏어 버린 것입니다.

다른 지자체들은 훨씬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의 밥상만큼은 지켰습니다. 왜 그랬을까요? 교육은 국가의 백년계획이라는 미래를 위해서였습니다. 김문수 후보만이 감액추경을 단행했고, 가장 먼저 삭감한 예산이 아이들 밥값이었습니다.

김문수 후보에게 묻습니다. 무상급식이 포퓰리즘이라면, 헌법 제31조 제3항 “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”는 조항도 포퓰리즘입니까? 모두가 낸 세금으로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밥을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낭비입니까? 그 돈을 빼앗아서 지인들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사업에 쓰신 것입니까?

김문수 후보는 오늘도 정정당당을 외치고 있습니다. 그러나 김 후보의 선택은 국가의 희망이자 가장 약한 존재인 아이들의 밥값을 줄이는 결정이었습니다. 과연 이것이 정정당당입니까? 그 손으로 국민의 밥상과 민생경제를 책임지겠다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?

아이들 밥그릇부터 걷어찬 사람은 결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없습니다.

2025년 5월 27일

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
단장 강득구, 부단장 정준호·박관천